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한두 달 내 정상 가동 불가”

준비 부족 사과…“책상·사람 있다고 수사기관 아냐”
“공정·절제 원칙 지켜 검찰과 다른 조직문화 만들 것”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이 출범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했다.
임 청장은 6일 오전 8시50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열린 도어스타팅(약식 기자회견·문답)에서 “출범 과정에서 예산과 조직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당장 한두 달 사이에 정상적인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곳으로 책상과 사람이 수십 개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정비된 것은 아니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린 수사관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조직 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일 본청과 서울청을 둘러 보고 광주청에도 와봤지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직원들도 황당하고 어안이 병병한 상황이었다”며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수청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중수청의 관할이 전남·전북·제주까지 확대되면서 발생할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출장조사 등 유연한 운영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 등 원거리 지역에 별도 지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의 수사 영역이 충돌할 가능성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취임 직후 열린 도어스타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해서는 ‘공정과 절제’를 강조했다.
임 청장은 “사건을 선택하는 문제를 비롯해 모든 부분에 공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광주청에서도 그 원칙을 지킴으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무리한 수사를 언급하며 “끝까지

지, 가족까지 파고드는 절제되지 않은 수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장직에 지원한 배경도 밝혔다.
그는 “검사들에게 검사의 이름을 떼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기존 검찰의 잘못된 상명하복 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를 바꾸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를 선택한 이유로는 지역에 대한 신뢰와 인연을 꼽았다.
임 청장은 “광주에서 시민사회 분들과 인연이 있었고, 도가니 사건(광주인화화 교 성폭력 사건)으로 검사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을 때 저를 지지해준 분들도 있다”며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 같은 든든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임 청장은 “제가 과거 검사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걸고 용기를 내야 했던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구성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고, 5·18은 역사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이라며 “검찰과는 다른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취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그는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을 외친 시민들의 세월이 수십 년이고, 계엄과 내란을 겪었음에도 이 자리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영령들에게 흔들림 없이 씩씩하게 가겠다고 약속하고 왔다”며 “갈 길이 여전히 멀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땅속 구멍’ 광주 66개 미복구 ‘전국 최다’ 최근 5년 공동 171개 발견…긴급 등급 78개 중 29개 방치

광주에서 지반침하 위험 요소인 ‘공동(空洞)’이 무더기로 발견됐지만 상당수가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복구 공동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긴급 등급으로 분류된 공동도 상당수 방치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안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 까지 도로를 탐사해 발견한 공동은 전국 111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2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광주는 같은 기간 171개의 공동이 발견됐으며, 이 중 66개가 미복구 상태로 남아 미복구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미복구율은 38.6%다. 전북 49개, 경기 21개, 강원 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는 긴급 등급 공동의 미복구도 적지 않았다. 발견된 긴급 공동 78개 가운데 29개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는 24개의 공동이 발견됐으며 이 중 10개가 미복구 상태였다. 미복구율은 41.7%로 광주보다 높았다.
지역별 미복구율은 충남 42.9%, 전북 42.2%, 전남 41.7%, 강원 41.0%, 광주 3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복구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전국 미복구 공동 202개 가운데 발견된 지 1년이 넘는 곳은 130개로 64.4%를 차지했다. 2년이 넘는 공동도 27개에 달했다.
북구 예정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공동은

168개로 전체 미복구 물량의 83.2%에 달했다. 복구 시기를 제시한 17개 가운데 11개는 예정 시기를 넘겼는데도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이후 관리주체에 통보되는 과정도 지연되고 있다.
미복구 공동 202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사 이후 도로 관리주체 등에 통보되기까지 평균 77일이 걸렸다. 90일 이상 소연된 사례가 82건이었으며, 최장 21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광주는 지난해에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공동이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으로 지목됐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토대로 한 당시 조사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광주에서 141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당시 조치가 완료된 공동은 25건에 불과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탐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공동을 발견한 뒤 실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박기왕 의원은 “땅속 구멍을 찾아놓고 메울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다면 탐사는 위험을 확인하는 데서 멈춘 것”이라며 “찾는 것만큼 메우는 것까지 국가가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에만 있는 복구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복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80주년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연해본 다국어(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낭독을 하고 있다.

한글날 100주년인데…행정용어까지 외래어 남용

지자체 보도자료·상가 간판 표기 일관성 부족
업무보고 혼선 잇따라·세대 간 의사소통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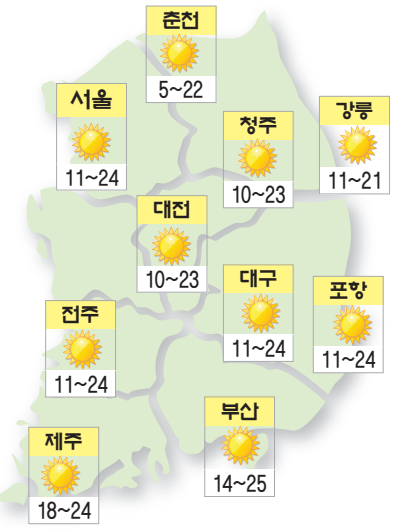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았지만, 지자체 보도자료와 각종 간판 등에 외국어 표기가 여전히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문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글보다 외국어가 더 눈에 띄는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동 일대

일부 상가 간판은 한글이 외국어보다 크기와 비율, 배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돼 있었다. 일부 매장은 한글 병기 없이 영어로만 상호를 표기돼 있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주장 인근에 설치된 한 간판에는 영어로 ‘Dongmyeong Culture’라고 표기돼 있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외국어와 신조어, 줄임말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량이 훌륭하다’는 의미의 ‘폼 미쳤다’, ‘꾸민 듯 안 꾸민 듯’을 뜻하는 ‘꾸안꾸’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언어 사용은 세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명칭과 보도자료

에서도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
동구의 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관로’와 ‘하수관로’를 구분하면서 별도의 설명 없이 ‘네모형’은 관로, ‘둥그라미 형태’는 하수관로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표기해 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I’와 ‘인공지능’을 혼용하는 등 같은 개념을 두고 용어 표기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희선 동구의회의 의원은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시민에게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계 이름이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행정용어와 간판 등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말 사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32	달출	02:41
예보	18:09	달입	16:15



광주	☀️	11~23
목포	☀️	13~23
여수	☀️	13~24
순천	☀️	11~24
구례	☀️	9~24
광주	☀️	10~24
함평	☀️	10~24
완도	☀️	13~25
흑산도	☀️	17~23
고흥	☀️	10~25
진남	☀️	13~23
진도	☀️	13~23

목포	미물(고)	11:34 / ---:---
	샘물(저)	04:55 / 17:00
여수	미물(고)	06:49 / 19:10
	샘물(저)	00:47 / 12:42

보증인 허위 기재·서명 위조

만년필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서에 보증인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조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재판장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A씨는 2022년 11월 18일께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체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보증인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남용·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또 같은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위조한 계약서를 B씨에게 전달해 행사한 혐의도 받.

A씨 측은 재판에서 보증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수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증인이 A씨에게 재차 항의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근거로 위주를 인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오늘 ‘팡파르’

금남로·충장로서 5일간 개막쇼·퍼레이드 다채
YB·김산옥·김진웅 등 출연...세대별 명곡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도심 길거리 축제인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7일 개막한다.

오는 11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충장축제는 ‘충장축제 제23번째 이야기,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세대마다 가슴 속에 간직한 노래를 매개로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가족·친구·연인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쇼는 7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앞 주차대에서 열린다. 형식적인 의전 행사는 최소화하고 ‘추억의 노래’를 따라 과거의 기억에서 오늘을 거쳐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공연형 개막식이다. 개막쇼는 모두 5막으로 구성된다. 1막 ‘기억해요, 이 노래’, 2막 ‘추억의 노래 속 문을 열다’, 3막 ‘흥겨운 그 노래’, 4막 ‘꿈결 속에 그 노래’, 5막 ‘함께 노래하다’ 순으로 진행된다.

7080부터 2000년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명곡을 재해석한 DJ 공연과 커버밴드, 풍성한 사운드와 역동적인 행진이 어우러진 마칭 브라스 밴드 공연 등이 무대를 채운다.

축하공연에는 각기 다른 음악적 매력을 지닌 가수들이 출연한다.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과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보컬 김진웅에 이어 대한민



충장로에서 한복을 입고, 입고, 건다'를 주제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 일원에서 열린 레트로 '한복 감성투어'에 참가자들이 형형색색의 한복을 차려입고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국 대표 록밴드 YB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노래하며 개막쇼의 대미를 장식한다.

개막쇼에 앞서 이날 오후부터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미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오후 2시 빛의 음성 인근에서는 ‘추억의 노래 테마거리’ 개관식이 열린다. LP 음악실과 코인노래방, 충장 나이트 등 세대별 추억을 상징하는 공간을 거리 곳곳

에 재현해 익숙한 노래와 함께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금남로 2~3가에서는 13개 행정동이 참여하는 상징물 전시전도 열린다. 7~8일 각 동이 선정한 ‘추억의 노래’를 지역의 이야기와 특색을 담은 상징물로 표현해 선보인다.

전시된 상징물은 10일 충장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충장 Original 퍼레이드’에도 등장해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임택 청장은 “누구에게나 한 곡쯤은 듣는 순간 그 시절과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노래’가 있을 것”이라며 “충장축제에서 자신만의 추억의 노래를 다시 만나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